

한국수어(KSL) 전문용어사전의 구축 방법론 연구

— 볼링과 축구 용어를 중심으로 —

윤 석 민 · 채 규 현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수립 연구 |
| 2.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전을 구축할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용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볼링’과 ‘축구’를 전문 분야로 설정하고, 방법론 수립을 위한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용어를 중심으로 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특히 방법론은 표제어 선정·표기·배열과 관련되는 거시구조와 뜻풀이 기술과 관련되는 미시구조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기존 사전의 방법론을 수용하되, 한국수어만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KSL(한국수어), KL(한국어), 전문용어사전, 방법론, 거시구조, 미시구조

1. 서론

한국수어(KSL)¹⁾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타당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하나의 언어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어(KL)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언어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1조에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한국수어도 한국어와 동등한 국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사실과 달리 실제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 단적인 측면이 바로 ‘사전’의 문제이다.

사전은 의사소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축 작업은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시하며 연구자들에게 적극 장려하여 한층 더 발전된 사전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국가적 관심이나 연구자들의 노력도 부족한 실태이다. 국가 주도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던 수어 사전 구축도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8년 1월 현재,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2016)에 등재된 전문용어²⁾는 10,800개³⁾인 반면, 2014년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40,192개의 전

- 1) 한국수화언어(Korean Sign Language)의 줄임말. 수화(手話)에 비하여 언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
- 2) ‘전문용어’는 전문어와 구별된다. 전문어가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전문용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

문용어가 수록되어 있다.⁴⁾ 즉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수는 4년 전 「표준국어대사전」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기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양적 측면에서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실제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상당수의 전문용어가 한국어와 1대 1 대응의 치환 방식으로 조어져 있다. 이는 한국수어를 단순히 한국어에 기생하는 대응 언어쯤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한국수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질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많은 농인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때 농인들은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용어를 몰라 소통상 여러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용어 사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수어화자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돕고, 한국수어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사전으로서의 특성과 수어사전으로서의 특성을 겸비한 새로운 전문용어사전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⁵⁾

최근 윤병천 외(2017)의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다. 이것은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즉 전문분야 선정, 전문용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전

용하는 말이다. 한국수어의 경우, 농인 및 농사회의 특성상 특정 분야의 수어가 일반어로 공유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에 대한 필요성은 일반어로서의 한국수어 필요성에 못지 않게 크다.

- 3)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홈페이지(<http://sldict.korean.go.kr>)에서 인용.
- 4) ‘권지윤 외, “[마부작침] 나는 말하고 있다”, SBS NEWS, 2017.11.23.’에서 인용.
- 5) 국립국어원·한국나사렛대학교(2017)의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반영된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세부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수어 사전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수어 사전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용어 정비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곳에 담긴 내용 가운데 사전 구축 방법론과 관련한 부분을 심화, 확대하고 전문용어의 선정이나 수집 분석 방법 및 사전 모형 등을 이론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수어 사전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한국수어 사전의 모형까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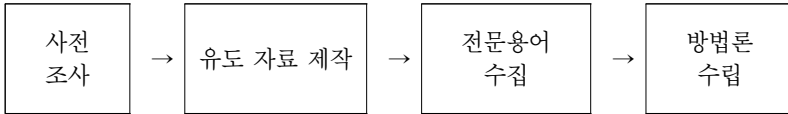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수어의 전문용어를 수집,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2장) 이렇게 수집,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전을 구축할 때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3장) 방식으로 연구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3장의 사전 구축 방법론은 거시구조(3.2)와 미시구조(3.2)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 한국어 사전의 구축에 적용된 언어학적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체계화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모형을 보여줄 것이다.

2.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인이 알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용어를 수록하여, 전문용어에 대한 농인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농인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인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수록할 수 있게 적절한 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연구의 단계



2.1. 사전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수집하고 구축할 전문 분야를 ‘운동’ 분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야 설정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실제 한국 농인들은 동호회를 설립하고 참여하여 특정 운동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농아인체육연맹⁶⁾에 따르면, 한국 농사회에서는 대한농아인당구협회, 대한농아인게이트볼협회, 대한농아인배드민턴협회, 대한농아인야구협회, 대한농아인축구협회 등 다양한 운동 분야 협회가 있으며 많은 농인들이 이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국농아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농아인들은 운동 분야를 손쉽게 접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이 운동 분야를 접하는 농아인들이나 기존에 운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농아인들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운동 분야에 대한 용어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운동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숙한 전문 분야이지만, 실제 운동 경기 안에서의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된 특정 용어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6)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홈페이지(<http://kdsf.or.kr>)에서 인용.

7) 2017년, 제14회를 맞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어 9개 종목 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대한농아인체육연맹 <http://kdsf.or.kr>).

있던 농아인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분야 전문용어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한국 농아인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운동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사전 구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운동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사전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농아인들이 운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운동 분야를 전문 분야로 아예 다루지 않거나, 전문 분야로 다루더라도 체계적인 정리 없어, 대응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거나 단순히 흩어져 있는 용어들을 수집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기획·편찬한 「한국수어사전」(2016)은 ‘법률’, ‘교통’, ‘의학’, ‘정보통신’, ‘종교’, ‘경제’, ‘정치’ 등 분야의 전문용어를 사전으로 구축하여 농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전문용어사전」에는 ‘운동’ 분야에 대한 사전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동 분야에 대한 용어를 알고자 하는 농아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수집한 용어에 대한 사전 구축 방법론을 논의할 분야로서 운동 분야를 설정하고, 운동 분야 중에서 세부 종목을 설정하기 위해 실제 한국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세부 운동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체육연맹, 생활체육 또는 올림픽 경기에서 활동 중인 농인 30명을 대상으로, 한국 농사회에서 가장 활성화된 세부 운동 종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한국 농사회에서 활성화된 운동 종목 조사 결과(총 30명)

종목	인원	종목	인원
게이트볼	3	야구	2
농구	4	축구	10
볼링	7	컬링	1
술런	3		

(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운동 종목 중에서도 ‘볼링’과 ‘축구’가 농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지역별 팀 또는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농인의 참여가 많은 운동 종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 분야 중에서도 ‘볼링’과 ‘축구’ 종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2.2. 유도 자료 제작 및 전문용어 수집

‘볼링’과 ‘축구’에 대한 전문용어 수집을 위한 유도 자료 제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전문서적과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관련 용어를 사전에 수집하였다.

(3) ‘볼링’, ‘축구’ 전문용어 수집을 위한 참고자료

종목	자료유형	출처
볼링	서지	신성 볼링(월간 볼링)
	웹사이트	한국프로볼링협회(http://www.koreapba.com)
	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01), 『운동 경기 용어 순화집』
축구	서지	김준영(2001), 『축구용어 바르게 알기: 영어-한글편』, 대한미디어
	웹사이트	대한축구협회(http://www.kfa.or.kr)
	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01), 『운동 경기 용어 순화집』 대한축구협회(2016), 『경기 규칙』

(3)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볼링 ‘339개’, 축구 ‘301개’의 전문용어를 확립하였다. 또한 각 전문용어는 ‘경기장’, ‘규칙’, ‘기술’, ‘반칙’, ‘볼 슈팅’, ‘선수단’, ‘용품’, ‘기타’의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실제 수집한 각 종목별 전문용어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종목별 수집된 전문용어의 예

ㄱ. ‘볼링’의 경우

주제	표제어	설명
기술	핑거팁(fingertip)	볼의 홀에 중앙직의 첫 마디만 걸쳐 넣어 볼을 파지하는 그림
반칙	지연투구 (원페어레이нк티시)	규정에 제시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투구해야 함.

ㄴ. ‘축구’ 수집 전문용어 일부분

주제	표제어	설명
기술	드롭샷(dropshot)	공을 떨어뜨려 튀어 오르는 순간을 이용하여 차내는 킥의 일종
반칙	차징(charging)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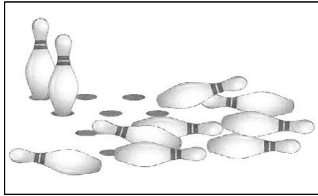
실제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한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유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이때 유도 자료는 언어제공자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유형과 수집 방법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유도 자료는 ‘그림’, ‘사진’, ‘동영상’, ‘수어 영상⁸⁾’의 4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으며, 그 예를 제시하

8) 여기서 ‘수어 영상’이라는 것은 주로 영상 촬영 등의 및 진행에 필요한 설명, 일상생활에서의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 등 언어제공자가 편안하고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농인 사회자의 수어를 촬영하여 유도 자료로 활용된 것을 말한다.

면 다음과 같다.

(5) '볼링', '축구' 유도 자료의 예시

ㄱ. 그림 유형



ㄴ. 사진 유형



유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사회자⁹⁾와 언어제공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언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선정하였다.

(6) 언어제공자의 자격 요건

- ㄱ. 19세 이상의 농인
- ㄴ.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 ㄷ. 초·중·고등학교 농학교 출신 농인 우선 선발
- ㄹ. 해당 경기 종목에서 5년 이상 선수 생활 경험이 있는 농인

9) 사회자는 i) 초·중·고등학교 농학교 출신 농인 ii) 20년 이상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iii) 수어몽치 구축 관련 참여 유경험자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특히 (6)의 자격 요건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 수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로서, 한국수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6ㄱ, ㄴ, ㄷ)이면 해당 경기 종목에 관해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6ㄹ)를 지역에 따라 언어제공자¹⁰⁾로 선정하여, 수집한 한국수어 전문용어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 4인과 종목별 언어제공자 각 30인을 선정하고, 사회자 1인과 언어제공자 1인이 1대 1로, 유도 자료를 시청하고 이를 한국수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2.3. 한국수어 전문용어 수집 결과

실제 유도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제공자를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를 수집한 결과, 불링은 총 339개 어휘 중 ‘287개’를, 축구는 총 301개 어휘 중 ‘255개’의 용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한국수어 전문용어 수집 결과

어휘수 \ 종목	불링	축구
목표 어휘수	339	301
수집 성공 어휘수	287	255
수집 실패 어휘수	34	22
수집 보류 어휘수	18	24

10) 출신 지역에 따른 언어제공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 종목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대구	경상	부산	제주	계(명)
불링	6	2	3	4	0	2	7	2	4	30명
축구	2	10	6	2	4	2	4	0	0	30명

다만 (7)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집 실패’와 ‘수집 보류’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수집 실패 어휘’는 목표 어휘 중에서 특정 어휘가 한국어(KL)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수어(KSL)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¹¹⁾로서, 이는 본 연구가 한국어(KL)에 대응하는 한국수어(KSL) 용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편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사전에 수록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한국수어가 없는 것들은 한국어(KL) 사전에는 수록될 수 있을지라도 한국수어(KSL) 전문용어사전에는 수록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집 보류 어휘’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한국수어 표현이 하나의 어휘가 아닌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데 가까운 표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한국수어 표현이 하나의 어휘로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집 보류 어휘’는 엄밀한 의미로서 어휘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연 ‘수집 보류 어휘’를 어휘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전에 수록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집 보류 어휘’는 사전에 수록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첫째, ‘수집 보류 어휘’는 아직 어휘로서 문법화¹²⁾ 되지는 않았지만, 문법화 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집 보류 어휘’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적절한 표현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설명에 가까운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을 뿐, 지속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이에 따라 의사소통의

11) 실제 조사 결과,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수어(KSL)에는 있지만 한국어(KL)에는 없는 표현이 그러한 것들로서, 예를 들어 10개의 핀 중 특정 핀만 남아 있는 경우 한국수어에는 이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수어 표현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한국수어 표현들은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전이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인 만큼 필수적으로 사전에 수록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수록 방법론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12) 어휘로서 문법화 된다는 것은 설명적 표현이 특정 단어로 어휘화(lexicalization) 되는 과정을 말한다.

효율성의 증가를 위해 표현이 간소화되면 이는 언젠가 하나의 어휘로 정립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집 보류 어휘’는 많은 수어 화자들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수집 보류 어휘’가 비록 하나의 설명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수어 화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수집 보류 어휘’가 사전에 수록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전문용어사전이 한국농인의 특성과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사전이라는 것은 수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수적으로 선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수집 보류 어휘’는 화자들끼리 어느 정도 약속된 형태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수집 보류 어휘’가 설명에 가까운 표현들이라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화자들끼리는 의사소통을 위해 약속된 형태로 사용한다. ‘수집 보류 어휘’가 하나의 어휘가 아닌 설명에 불과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설명의 수어 형태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사용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특정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수집 보류 어휘’는 충분히 사전에 수록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볼링’과 ‘축구’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 ‘수집 실패 어휘’의 경우에는 추구하는 사전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이라는 점에서 수록될 수 없지만, ‘수집 성공 어휘’와 ‘수집 보류 어휘’는 충분히 사전에 수록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할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8)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수립의 대상

어휘수 \ 종목	볼링	축구
수집 성공 어휘수	287	255
수집 보류 어휘수	18	24
수록 대상 어휘수	305	279

3.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수립 연구

사전을 구축할 때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정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때 ‘거시구조’에서는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고 이를 구성하며, 표제어를 표기하고 배열하는 문제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미시구조’에서는 개별 표제어 기술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방법론 수립 연구에서는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방법론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3.1. 거시구조

사전에서 거시구조라는 것은 표제어를 선정과 이를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표제어들 간의 관계를 따져 배열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먼저 표제어 선정은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한국어(KL)의 표제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KSL)을 제시하는, 한국어(KL) 중심의 표제어 선정이 아닌 한국수어(KSL)를 중심으로 한 표제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제어의 표기는 원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이며, 원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사전 구축의 대상이 전문용어인 만큼 단순히 원어를 번역한 표현들을 표제어로 수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원어와 번역한 한국수어, 한국어 표현을 각각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제어의 배열은 자모의 배열순서나 이형동의어의 배열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수어 전문용어의 경우 이형동의어나 변이형이 쉽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표제어 배열은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구조의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실제 한국수어 전문 용어사전을 구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거시구조 지침은 한국어-한국수어 대응 사전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대응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사전이 아닌, 수형을 기반으로 한 사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표제어를 선정과 이를 배열하는 거시구조에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참고자료들의 거시구조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거시구조 방법론 수립 참고자료 및 각 자료의 거시구조 특징

구분		발행처	사전명	발행연도	특징
한국어 사전	일반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표제어 선정 지침 ① 일상적인 것, 북한, 전문 분야, 방언, 옛말 중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 수록 ② 접사, 어근, 어미 등 단어가 아닌 단위 수록 ③ 합성어와 파생어: 영향력이 강한 일부만 등재 (잠재적인 합성어는 미등재) 표제어의 배열: 가나다 순
	전문어 사전	남갑균	야구용어사전	2004	표제어 선정 지침 ① 야구 용어 수록 ② 일본식 야구 용어 배제, 미국식 야구 용어 수록 표제어의 배열: 가나다 순 (원어는 발음 기준)
수어 사전	일반 수어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2005	표제어 선정: 인사·대화, 시간, 병원, 가족, 음식 등 일상생활에

					서 사용되는 어휘 수록 표제어의 배열: 가나다 순
	사전	표준 수화 편찬 위원회	표준수화 사전	1982	표제어 선정: 중학교 1학년에서 3 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와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일반어를 중심 으로 기본형과 명사형으로 선정 표제어의 배열: 가나다 순
	전문 수어 사전	국립 국어원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2012	표제어 선정: 법률, 교통, 의학, 종교, 정치 등 전문 분야에서 사 용되는 어휘 수록 표제어의 배열: 분야별 가나다 순
		한화 이글스	T h e biggest voice ¹³⁾	2017	표제어 선정: 표준수어에 등재되 지 않은 야구 용어 135개 표제어의 배열: 분야 분류-분류 속 어휘 가나다 순
		미 국 국립 통역 교육 센터	법률용어 수어사전	1947	표제어 선정: 법정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 300개를 표제 어로 선정 표제어의 배열: 알파벳 순
		함부르 크 대 학 교 독일 수어 농인 의사 소통 연구소	조경전문 수어사전	2010	표제어 선정: 조경과 조원 분야의 전문용어 654개와 독일어 동의어 190개를 함께 기록 표제어의 배열: 알파벳 순

(9)의 표제어 선정 지침에서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사전은 일상생

13) 『The biggest voice』(2017)는 야구 구단 ‘한화이글스’를 중심으로 수행한 야구 수어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야구 수어 전문용어사전이다. 『The biggest voice』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http://www.thebiggestvoice.co.kr>)를 통해서만 사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들을 표제어 수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한국수어사전」이 그러한 예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목적이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수화편찬위원회의 「표준수화사전」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을 수록한다는 점에서 위 두 사전과 차이가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을 수록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쉬운 어휘를 수록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위 두 사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문어사전은 일반사전과 달리, ‘야구(「야구용어사전」, 「The biggest voice」)’, ‘법률, 교통, 정치(「한국수어전문용어사전」)’, ‘조경(「조경전문수어사전」) 등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수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표제어 배열에 있어서 (9)의 자료들은 보편적으로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르고 있지만,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용어사전에서는 간혹 세부 분야(주제)에 따라 일차적으로 표제어를 분류한 후에 그 분류 속에서 ‘가나다순’으로 정렬하는 예(「한국수어전문용어사전」, 「The biggest voice」)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와 같은 기존 사전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구조 수립의 지침을 세우고,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1, 국립국어연구원 2000-4-2.

본고의 이어지는 장에서는 실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거시구조의 지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1. 표제어 선정의 지침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기존 전문용어사전과 동일하게 특정 전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제어로 수록한다. 이때 본 연구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운동’ 분야 중에서도 ‘볼링’과 ‘축구’를 세부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전을 구축하기 때문에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지침 1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0)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지침1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어 중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수록하되,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 ① 본 연구에서는 전문 분야 중 ‘볼링’과 ‘축구’ 영역에서 사용되는 수어를 표제어로 수록한다.
- ② 각 표제어는 영역에 따라 구분지어 수록한다.

선정 지침 (10)을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할 때에는 ‘운동’ 분야 중에서도 ‘볼링’과 ‘축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록하며, 용어를 수록할 때에는 주제별로 구분지어 수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라는 표현을 단순히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문용어 중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는 몇몇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표제어 수록에서 문제가 되는 전문용어의 예

- ㄱ. 볼링의 예: 토너먼트, 투구, 파울
- ㄴ. 축구의 예: 구급차, 국가대표, 슈팅, 축구선수

실제 (11)에 제시된 용어들은 전문용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 (11)의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며,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한국어 (KL) 중심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수어 화자들은 한국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는 한국수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는 특정 어휘가 수어를 통해 노출되기보다는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의 맥락을 통해 추론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규범화된 특정 수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자의적인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국수어 화자들은 특정 수어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인지하고 있는 어휘의 수도 한국어 화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한국수어는 당장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상어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한국어 화자들이 일상어라고 인식하는 표현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록 한국어에서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전문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를 이르지만,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 ‘전문용어’는 수어 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정의하고 (11)의 용어들 역시 전문용어에 속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2)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지침2

표제어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볼링, 축구 분야에서 널리 쓰는 수어 단어를 표제어로 삼는다.
- ② 비대응 수어 단어도 표제어로 삼는다.

(12)의 지침에서 주목할 것은 ‘비대응 수어 단어’ 또한 표제어로 수록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비대응 수어 단어’라는 것은 대응되는 한국어는 없지만 수어에서 단어 자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한국어에서는 ‘볼링 경기 중 레인에서 2, 4, 5번 핀이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수어에서는 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화자들 간 약속된 동일한 수어로 이를 표현한다. 즉 이러한 수어의 경우 특정 상황을 지칭하는 약속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한국수어에서는 이를 단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비대응 수어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응 수어 단어’는 비록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더라도 단어 자격을 갖춘 한국수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마땅히 표제어로 수록되어야 한다.¹⁴⁾

3.1.2. 표제어 표기의 지침

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제어 선정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표제어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표기한다.

(13)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표기 지침¹⁾

- 1) 표제어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적되, 필요에 따라 원어를 ‘()’ 안에 적는다.

(예) 토너먼트 (tournament)

- 2) 표제어는 띄어 쓰는 방법으로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표시한다.

(예) 레인 피니시 (lane finish), 라이트 윙백 (right wingback)

14) 표제어 선정 지침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수어’와 ‘제스처(Gesture)’의 구별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 전문용어의 종목과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① 전문용어의 종목에 대한 정보를 『 』 안에 표시하되, 종목은 ‘볼링’, ‘축구’로 구분한다.

② 분야에 대한 정보를 「 」 안에 표시하되, 분야는 ‘경기장’, ‘규칙’, ‘기술’, ‘반칙’, ‘볼 슈팅’, ‘선수단’, ‘용품’, ‘기타’로 구분한다.

(예) 스카치 더블스 (scotch doubles) 『볼링』 「규칙」

기본적으로 운동 분야의 전문용어는 외국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표기할 때에도 번역 표현과 원어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해당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특히 (13)의 3)의 지침을 통해 용어의 사용 분야와 주제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와 주제에 대한 이해까지도 도울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는 ‘비대응 수어 단어’를 표제어로 수록할 경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표기 지침2

4) 비대응 수어 단어의 경우, 「 」 안에 ‘…의 뜻을 나타내는 수어 단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제어로 제시한다.

(14)의 4) 지침에 따라서 ‘비대응 수어 단어’는 대응하는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의 뜻을 나타내는 수어 단어’라는 표현을 통해 표제어로 수록할 수 있다. 즉 ‘볼링 경기 중 레인에서 2, 4, 5번 핀이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수어 표현을 표제어로 수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수록할 수 있는 것이다.

(15) 비대응 수어 단어의 표제어 표기

(예) [레인에서 2, 4, 5번 핀이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의 뜻을 나타내는 수어 단어] 『볼링』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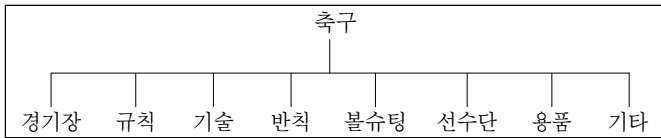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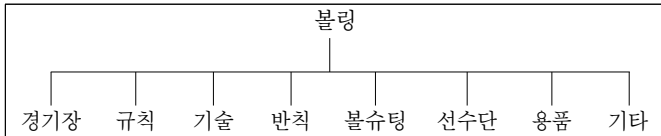
3.1.3. 표제어 배열의 지침

사전 구축을 위해 선정된 표제어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배열한다.¹⁵⁾

(16)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배열 지침1

1) 표제어는 종목과 분야에 따라 구분하며, 종목과 분야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 ① 표제어는 ‘볼링’과 ‘축구’ 종목으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 ② 각 종목의 표제어는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고, 분야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기타’는 별도로 마지막에 배열한다.



2) 각 종목·분야의 표제어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15) (16)의 표제어 배열 지침은 음성어 전문용어 사전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종목이든, 분야이든 아내면 각 종목 안에 배열되는 한국수어 단어이든 그 배열이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한국수어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어-한국수어 대역사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수어 표제어 배열 원칙에 따라 종목/분야/용어가 배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형에 기반한 배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최근 시도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 수형으로 찾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한국수어의 수형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의 배열 지침은 선정된 표제어는 분야와 주제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분야 속에서 가나다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표제어 배열 지침에서 중요한 것은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의 처리에 있다. 다음의 추가 지침을 보자.

(17)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배열 지침2

3)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

- 한 수형에 하나 이상의 의미가 대응되거나, 다른 수형에 동일한 의미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동형이의어라고 하고 후자를 이형동의어라고 한다.

(17)에 따르면 한국수어 전문용어에는 한 수형에 하나 이상의 의미가 대응되는 동형이의어와, 다른 수형에 동일한 의미가 대응되는 이형동의어가 존재한다.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의 처리를 위해서는 동형이의 또는 이형동의 관계에 있는 용어들 중 어떤 용어를 표제어로 수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제 ‘볼링’과 ‘축구’ 분야에서 나타나는 동형이의어는 표제어 수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동형이의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볼링 용어의 동형이의어 예시

- ㄱ. 어프로치 (approach): 레인 중에서 앨리 부분을 제외한 파울라인 뒤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 15피트의 길이에 바닥에는 맞춥목이 일정 간격으로 박혀있어 볼러가 이를 기준으로 스타팅 위치를 정할 수 있다.
- ㄴ. 어프로치 (approach): 볼러가 투구를 하기 위해 푸시어웨이에서 릴리스에 이르기까지 스텝을 취하고 암스윙을 하는 동작 전체를

가리키는 말.

(18ㄱ)과 (18ㄴ)은 동일한 수형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형이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ㄱ)과 (18ㄴ) 중에서 어떤 표현을 표제어로 수록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표제어 배열 지침¹⁾의 “각 종목의 표제어는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고, 분야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는 지침에 따라 (18ㄱ)과 (18ㄴ)은 구분될 수 있다. (18ㄱ)은 ‘경기장’과 관련된 용어이며, (18ㄴ)은 ‘기술’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18ㄱ)과 (18ㄴ)은 세부 분야에 따라 일차적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제어 수록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⁶⁾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형동의어의 처리 문제이다. 이형동의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형동의어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립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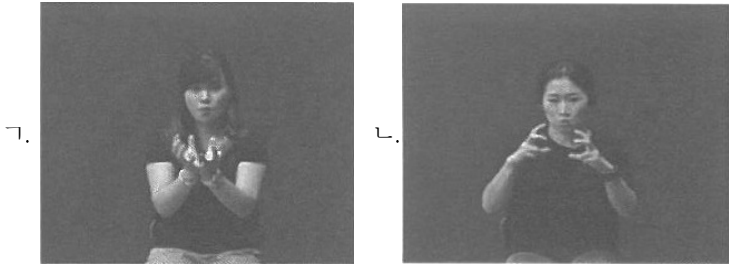
이형동의어는 기본적으로 변이형으로 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어휘가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가 같고 모든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것을 일컫는다. 즉 형태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형태가 몇몇 요인들로 인해 약간의 변이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수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¹⁷⁾, 의미적으로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 문체적 의미, 문맥 치환 여부 등을 일일이

16) 실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문용어 중에서 동형이의 관계에 있는 모든 표현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수어 ‘볼’의 경우, 수어 형태는 동일하지만 ‘볼링’과 ‘축구’ 종목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동형이의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 전문용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실제 한국수어의 변이형은 그 구분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어에서는 수형이나 수위의 미세한 차이가 다른 어휘를 가리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변이와 이형동의의 구분은 원래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형태들 중에서 어원적 성격의 형태를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이형들을 추론할 수 있다면, 이들의 관계는 변이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져 보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이형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이형동의어로 볼 수 있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불링 용어의 이형동의어 예시



(19ㄱ)과 (19ㄴ)은 다른 수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두 수어 모두 ‘볼(ball)’이라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19ㄱ)과 (19ㄴ)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형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형동의어는 변이형을 사전에 수록할 때 하나의 기본형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그 변이형들을 추가 정보로서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의미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단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형동의 관계의 모든 형태들을 각각 표제어로 수록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 처리에 관한 표제어 배열 지침을 정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0)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 처리에 관한 표제어 배열 지침3

- ① 전문용어에서 동형이의어는 수형은 같지만 종목이나 분야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종목이나 분야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 ② 전문용어에서 이형동의어는 같은 종목·분야 안의 표제어 간의 관계

18)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 문체적 의미, 문맥 치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드러나면 이형동의어가 아닌, 비슷한말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을 일컬으며, 이형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모두 표제어로 삼는다.

- 가) 이형동의어는 표제어를 달리해서 수록하되, '01, 02, 03...'과 같이 어깨번호를 붙여 제시한다.
- 나) 이형동의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서로 배열한다.

지금까지 3.1.에서는 사전의 구조 중에서도 표제어 선정·표기·배열과 관련된 거시구조 수립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거시구조 수립 지침의 특징은 전문용어의 범위 설정이나 비대응 수어 단어의 수록, 동형의어와 이형동의어의 처리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 사전들에서 나타나는 한국어(KL) 중심의 지침이 아닌, 한국수어(KSL) 중심의 지침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해서는 거시구조와 함께 사전 구조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시구조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3.2.에서는 사전의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사전 구축의 방법론을 세부적으로 수립해보고자 한다.

3.2. 미시구조

사전 구조에서 거시구조와 함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시구조는 수록된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기술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뜻풀이 기술 구조나 구체적인 기술 내용과 관련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미시구조는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의 목적에 따라 그 구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사전과 달리 전문용어사전은 일반사전에는 제시되지 않는 삽화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사전과 달리 한국수어사전은 수어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의 미시구조는 구축하려는 사전의 이용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제어에 대한 내용의 구조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정립하

는 미시구조 방법론 수립에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참고한 자료들의 미시구조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미시구조 방법론 수립 참고자료 및 각 자료의 미시구조 특징

구분		발행처	사전명	발행연도	특징
한국어 사전	일반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 기술방식: ‘표제어-어깨번호-원어-발음-활용[발음]-품사-문법정보-뜻-용례-어원-관련어-부가정보(관용구/속담)’
	전문어 사전	남갑균	야구용어사전	2004	• 기술방식: ‘표제어-한문·영문 원어-뜻’
수어 사전	일반 수어 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2005	• 기술방식: ‘표제어-수형-수형 설명-수형에 대응하는 한국어 뜻풀이’
		표준수화편찬위원회	표준수화사전	1982	• 기술방식: ‘표제어-수형-뜻풀이-예문’ • 수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작의 순서와 정도를 기호(…;→, - 등)를 사용해 표현 • 과거 다양한 형태의 수형을 하나의 형태로 표준화
	전문 수어 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전문용어사전	2012	• 기술방식: ‘표제어-수형-수형 설명-수형에 대응하는 한국어 뜻풀이’
		한화이글스	The biggest voice	2017	• 기술방식: ‘표제어-수형-수형 설명-뜻’
		미국국립통역교육센터	법률용어수어사전	1947	• 기술방식: ‘표제어-수형 및 예문(동영상)-뜻’ • 어휘에 대응하는 수어표현이 없거나 축어역으로 사용될 경우 이해하기 쉽게 수어의미를 설명하는 영상 재생 후 예문 제시
		함부르크대학교독일	조경전문수어사전	2010	• 기술방식: ‘표제어-영어 번역-뜻-수형-수형 설명-번이형’

		수어 농인 의사 소통 연구소			
--	--	-----------------------------	--	--	--

(21)의 표제어 내용 기술에서 주목할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수어사전은 표제어에 대한 수형 설명을 필수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KL) 표제어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KSL) 표현을 제시한 후에 이에 대한 뜻풀이와 수형의 설명을 제시하는 구조로 내용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시구조 중에서도 내용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¹⁹⁾

(22)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내용 구조 지침

- ㄱ. 표제어- 한국어표제어/한국수어표제어/원어/종목/분야
- ㄴ. 수어정보- 표제어에 대한 수어 시각자료/뜻풀이에 대한 수어 시각자료(영상, 사진 등)/예문에 대한 수어 시각자료
- ㄷ. 한국어정보- 품사/뜻풀이

(22)는 본 연구에서 수립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내용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기본적으로 표제어를 가장 첫 행에 제시하

19) (22)에 제시한 내용 구조 지침에는 미시구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각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들어가는 정보 요소가 많고, 특히 수어 정보의 성격상 사진이나 그림 및 동영상 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적지 않다. 만약 종이 사전으로 구성된다면 한 표제어가 몇 쪽에 걸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사전의 구축에는 전자 사전의 형태로 기획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조언을 주신 이영재 선생께 감사드린다.

되, 한국어(KL) 표제어와 한국수어(KSL) 표제어를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전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이 단순히 한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를 제시하는 사전이 아닌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 사전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 한국수어의 수형 기반 사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단순히 한국수어 표제어 수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까지도 수어로 제시한다. 기존 사전에서는 (22L)의 ‘뜻풀이에 대한 수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한국수어 표제어의 수형을 설명하고 한국어 뜻풀이를 제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기존 사전의 내용 기술 구조는 사전을 이용하는 농인들이 한국어 뜻풀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용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뜻풀이 이전에 한국수어 뜻풀이를 제시한 위 내용 구조는 한국수어를 모어로 의사소통하는 농인들의 이해를 돕고 한국수어 뜻풀이와 한국어 뜻풀이가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기술에서의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II, 국립국어연구원 2000-4-3.

본 연구에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어정보와 한국어정보에 대한 미시구조 지침을 각각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미시구조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시구조 지침은 거시구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한국수어 대응 사전을 전제로 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일반사전과 매우 유사한 미시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뜻풀이에서도 한국수어 고유의 뜻풀이가 아닌 일반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거시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시구조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수어를 중심으로 한 사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2.1. 수어정보에 대한 미시구조 지침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 제시되는 수어정보는 크게 표제어에 대한 수어 설명과 뜻풀이에 대한 수어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표제어에 대한 수어 설명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될 수 있다.

(23)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수어정보 지침1

1. 수어정보에서는 각 표제어의 수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수형이 대응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 ① 음운적 변이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적 변이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여 이를 이형동의어로 처리한다.
- ② 음운적 변이형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형을 해당 표제어의 수어정보에 제시하고, 변이형에 해당하는 수형을 관련 어휘에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23)을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이형동의어와 음운적 변이형이 구분되어 제시된다. 즉 이형동의어는 서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두 표현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을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할 수 있지만, 음운적 변이형은 하나의 형태로부터 그 변이형과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어원적 성격을 지닌 형태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변이형은 관련 어휘로서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또한 앞(2.3.)에서 논의한 단순한 설명에 가까운 수어표현의 경우에도 다음의 지침에 따라 사전에 적절히 기술될 수 있다.

(24)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표제어 수어정보 지침2

2) 표제어에 대응하는 수어표현이 단어가 아닌 단순한 설명에 가까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 ① 단순한 설명에 가까운 수어표현을 해당 표제어에 대응하는 수어표현으로 보고, 이를 수어정보에 제시한다.
- ② 이때 수어표현은 ‘-’을 이용하여 어휘화된 것이 아님을 제시한다.

앞(2.3.)의 논의를 통해 설명에 가까운 수어표현의 경우 아직 하나의 어휘로서 문법화 되지 않았지만 문법화 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과 한국수어 화자들 간에 약속된 일정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표제어로서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명에 가까운 수어표현은 표제어로 수록하되, 표제어를 설명하는 수어정보에서는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아직 하나의 어휘로 문법화 된 것이 아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사이드 킥(inside kick)’은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설명에 가까운 수어표현의 예이다. 실제 한국수어에서 ‘인사이드 킥’을 표현할 때에는 하나의 수어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발’, ‘안’, ‘차다’의 수어들을 조합하여 표현한다.²⁰⁾ 즉 한국수어에서는 ‘인사이드 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을 통해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표제어로 수록하고, 이에 대한 수어정보를 제시할 때에는 ‘발-안 쪽-차다’와 같이 제시하여, 해당 표현이 아직 하나의 어휘로 문법화 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뜻풀이에 대한 수형설명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될 수 있다.

(24)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뜻풀이 수어정보 지침

3) 표제어의 수어정보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20) 한국수어를 제시할 때에는 ‘ㄱ’의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어 ‘축구’를 지시하는 한국수어를 제시할 때에는 ‘축구’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 ① 각 표제어의 뜻을 수어로 제시하되 수어는 적절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② 뜻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을 수어로 제시하되 수어는 적절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24)의 지침을 통해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표제어에 대한 뜻을 제시할 때 한국어 뜻풀이가 아닌 한국수어 뜻을 중심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예문을 제시할 때에도 한국수어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어 화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3.2.2. 한국어정보에 대한 미시구조 지침

본 연구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지침은 수어정보에 이어 제시되는 한국어정보에 제시에 대한 지침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농인의 표제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한국어정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적절한 지침에 따라 부가적으로 한국어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뜻풀이에 대한 한국어정보의 기술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한국어정보 지침

2. 한국어정보에서는 각 표제어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품사 정보는 ‘[]’ 안에 제시하되, 품사 정보란에 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예) [명사], [동사]

- 2) 전문용어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 ① 순환적인 뜻풀이는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뜻풀이한다.
- ② 기존 사전과 전문어 사전의 뜻이 다른 경우 전문어 사전의 뜻을

우선한다. 그러나 기존 사전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문어 사전의 뜻풀이가 지나치게 어려워 이해가 힘든 경우 기존 사전을 따를 수 있다.

(25)의 지침에서는 한국어정보에는 품사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기존 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하되 표제어의 품사에 따라 뜻풀이의 기술 방식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기존 사전의 지침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사전이라면 통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기존 사전과 구별되는 지침이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종목’과 종목의 ‘세부 분야’에 따라 표제어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부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뜻풀이 기술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표제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표제어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통해서도 세부 분야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한국어정보 지침2

③ 전문용어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제시한다.

가) 운동 기구의 뜻풀이는 ‘…에 쓰는 기구.’ 형식으로 정의하고, 설명에서 구체적인 모양이나 규격을 밝힌다.

(예) **신가드(shinguard)** 『축구』 「용품」

[명사]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가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기구.

나) 운동 기술이나 동작의 뜻풀이는 ‘…에서, 어떻게 하는 동작/ 자세/기술.’ 형식으로 정의한다.

(예) **드리블(dribble)** 『축구』 「기술」

[명사] 축구에서, 볼을 발로 컨트롤하면서 몰고 가는 기술.

다) 경기 규칙 및 운영 방식의 뜻풀이는 ‘…경기에서, 어떻게 하는 일/방식/경우.’ 형식으로 정의한다. 이때 반칙의 정의는 ‘…하는 경우에 범하는 반칙.’ 형식으로 정의한다.

(예1) 스카치 더블스(scotch doubles) 『볼링』 「규칙」

[명사] **2인조 경기에서**, 두 선수가 각각 한 게임씩 던져 이 둘을 합친 점수로 승부를 가리는 대신 1게임에 같은 팀 소속의 볼러가 동시에 출전, 프레임을 번갈아가며 던진 결과로 **승부를 결정짓는 방식**.

(예2) 차징(charging) 『축구』 「규칙」

[명사]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에 범하는 반칙**.

(26)과 같은 지침에 따른 뜻풀이 기술은 사전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표제어의 분야를 더욱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이형동의어에 대한 뜻풀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27)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한국어정보 지침3

4) 이형동의어는 더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표제어(기본 표제어)에서 뜻풀이하고 다른 이형동의어 표제어에서는 ‘=’ 기호를 사용하여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린다.

(예) 오픈 프레임(open frame) 『볼링』 「규칙」

[명사] 2번의 투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핀을 다 쓰러뜨리지 못한 경우.

미스(miss) 『볼링』 「규칙」

[명사] = 오픈 프레임(open frame).

블로우(blow) 『볼링』 「규칙」

[명사] = 오픈 프레임(open frame).

(27)의 지침을 통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이형동의어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뜻풀이 하되, 이와 이형동의 관계에 있는 표현들은 일반적인 표제어의 뜻풀이를 특정 기호(‘=’)를 사용해 되풀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3.2.에서는 거시구조와 함께 사전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시구조 수립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미시구조 수립 지침의 특징은 기존 사전의 지침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만의 특징을 살리고자 수어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조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8)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조의 예



(28)을 통해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양적 측면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정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한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사전이 아닌, 한국어와 대등한 질적 수준의 한국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전 구축을 위한 전문용어 수집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대한 지침들을 수립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사전의 지침을 어느 정도 인용하되 한국수어만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사전 구조별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한국수어의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9)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할 한국수어의 특성

- ㄱ. 거시구조: 표제어 선정·표기·배열에서 한국수어의 특성 반영
⇒ 전문용어의 범위, 비대응 수어 단어의 수록, 동형이의어와 이형동의어의 처리 등
- ㄴ. 미시구조: 뜻풀이에서 한국수어의 특성 반영
⇒ 한국수어 표제어 수록, 한국수어 뜻풀이·예문 제시, 설명에 가까운 수어의 수록,
분야에 따른 뜻풀이 기술 방법의 구별, 이형동의어의 뜻풀이 방법 등

(29)를 통해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은 한국수어의 특성을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한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기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립한 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은 한국수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지침에서는 기존 사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 본고는 기존 사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한계의 극복 방안으로서 한국수어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미흡했던 한국수어, 더 나아가 한국농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후속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16),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http://sldict.korean.go.kr/front/sign/signList.do?top_category=SPE).
국립국어원(2016),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
권지윤 외, 「[마부작침] 나는 말하고 있다」, SBS NEWS, 2017.11.23.
김승국(1994), 『한국수화연구』, 오성출판사.
남갑균(2001), 『야구용어사전』, 지성사.
문화관광부(20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사전 개발』.
미국국립통역교육센터(1947), 법률용어수어사전(<http://www.interpretereducation.org/specialization/legal/terminology>).
안의정(2015), 『사전과 정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윤병천 외(2017), 『“한국수어 전문용어사전 구축”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윤석민(2012), 「농인의 국어교육론 정립을 위한 제언-농인의 국어 인식 및 국어 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성」, 『건지인문학』 8, 195-220면.
윤석민(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 『새국어생활』 23, 66-87면.
윤석민(2016), 「한국사회문화의 통합적 소통을 위한 제언-KL과 KSL의 공존과 소통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6, 국어국문학회, 23-61면.
윤석민(2017), 「한국수어(KSL)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국어학』 83, 국어학회, 93-118면.
윤석민·고아라(2015), 「성인 농인 문해교육 체계 설립을 위한 해석적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41-78면.
윤석민·서광진(2014), 「농인의 문해력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91, 한국언어문학회, 27-58면.
윤석민 외(2013), 『농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

윤석민 외(2014), 『농인의 문해교육 실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윤석민 외(2015), 「성인 농인 문해교육 체계 설립을 위한 해석적 연구」, 『국어문학』 60, 41-78면.

이영재(2010), 「한국 수화 언어의 인칭 대명사 체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재(2013), 「농인의 언어의식과 수화사용」, 『새국어생활』 23-2, 국립국어원, 43-65면.

이영재(2017),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특성」, 『2017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국어학회, 11-23면.

이준우 외(2016), 『“수형 기반 한국수어사전 구축”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정희창 외(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표준수화편찬위원회(1982), 『표준수화사전』, 대지출판사.

한화이글스(2017), The biggest voice(www.thebiggestvoice.co.kr).

함부르크대학교독일수어농인의사소통연구소(2010), 조경전문수어사전(<https://www.sign-lang.uni-hamburg.de/galex/intro/inhalt.html>).

【Abstracts】

A Study on Methodology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of Terminology

– With Terminology of bowling and soccer –

Yoon, Soeg-min · Chae, Gyu-hyeon

This study aims methodology of construction of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of Terminolog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ed Specialty fields and terminology to construct dictionary. Specifically In this survey with Deaf peoples, this study selected ‘bowling’ and ‘soccer’ to specialty fields to construct dictionary. And this study collected terminology for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This study established of methodology to construction of dictionary with collecting terminology. Especially, this study aimed methodology that composed of macro structure, related to selection·description·arrangement of headword, and micro structure, related to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We insist that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of Terminology must reflect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Korean Language, Dictionary of Terminology, Methodology, Macro Structure, Micro Structure

이 논문은 2018년 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